

[설.국.열차] 기적소리

원본 복습 자료

- 2019. 3월 모의고사 -

오르비클래스 국어영역
설승환

[11번 보충자료]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가)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 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나)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① ‘꽃힌[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뭉이[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비웃[비웁]’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얹고[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웁고[웁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12번 보충자료]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B형)

2.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중세 국어 체언 중에는 ‘ㅎ’을 끝소리로 가진 것들이 있다. 이러한 체언을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데 조사가 뒤따를 경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뒤따르는 조사	‘ㅎ’ 종성 체언의 실현 양상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는다. 예 : [짜히] (쌍+이) 즐어들 (땅이 질거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ㄱ’, ‘ㄷ’과 어울려 ‘ㅋ’, ‘ㅌ’으로 나타난다. 예 : [짜토] (쌍+도) 뛰더니 (땅도 움적이더니)
관형격 조사 ‘ㅅ’	‘ㅎ’은 나타나지 않는다. 예 : 다른 [짜] (쌍+ㅅ) 風俗은 (다른 땅의 풍속은)

<보기 2>

중세 국어	현대 국어
㉠ (나랑+울) 아스 맞디고	나라를 아우에게 맞기고
㉡ (궤+ㅅ) 네거리에	궤의 네거리에
㉢ (얹+과) 밧	안과 밧

- | | | | |
|---|-----|---|----|
| | ㉠ | ㉡ | ㉢ |
| ① | 나라힐 | 궤 | 안과 |
| ② | 나라힐 | 궤 | 안과 |
| ③ | 나라힐 | 궤 | 안과 |
| ④ | 나라을 | 궤 | 안과 |
| ⑤ | 나라을 | 궤 | 안과 |

[12번 보충자료] 2016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3~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

학생 A : ‘뽕씨’는 ‘벼’와 ‘씨’가 결합한 말이잖아? 그런데 왜 ‘벼씨’가 아니라 ‘뽕씨’야?

학생 B : 그러고 보니 ‘살’과 ‘고기’가 결합한 말도 ‘ㄱ’이 ‘ㅋ’으로 바뀌어서 ‘살코기’로 쓰이고 있어.

학생 A : 그렇구나. 왜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는 것일까?

[자료]

현대 국어와 달리 15세기 국어에서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 즉 어두 자음군이 올 수 있었다. 그러한 자음군 중 맨 앞의 ‘ㅂ’은 당시에는 실제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ㅂ’은 훗날 탈락하였으나 과거에 만들어진 복합어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현대 국어의 ‘벼+씨 → 뽕씨’에서 ‘ㅂ’이 생겨나는 이유는 ‘ㅂ > 씨’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15세기에는 ‘뽕’의 어두에 ‘ㅂ’이 있었는데, 당시 ‘벼+뽕 → 벼뽕’이 만들어진 후 나중에 ‘뽕’의 어두에 있는 ‘ㅂ’이 앞 형태소의 받침 자리로 가서 붙어 ‘뽕씨’와 같은 어형이 생성되었다. ‘ㅂ > 씨’에서 보듯이 훗날 단일어에서는 ‘ㅂ’이 탈락하였다. 그러나 ㉠ 복합어 속에서는 ‘ㅂ’이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현대 국어에서 확인된다.

15세기 국어에는 체언 종성에 ‘ㅎ’을 가진 단어들이 존재했는데, 이를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한다. 이 ‘ㅎ’ 역시 훗날 탈락하였으나 과거에 만들어진 단어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ㅎ’ 종성 체언이었던 ‘술ㅎ’을 살펴보자. ‘ㅎ’ 종성 체언은 단독형으로 쓰일 때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으나 ‘술ㅎ+이 → 술히’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연음이 되어 나타났다. 현대 국어의 ‘살+고기 → 살코기’에서 ‘ㄱ’이 ‘ㅋ’으로 바뀌는 이유 역시 ‘술ㅎ > 살’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ㅎ’ 종성 체언은 ‘ㄱ, ㄷ, ㅂ’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할 때 ‘ㅎ’ 종성이 뒤에 오는 ‘ㄱ, ㄷ, ㅂ’과 결합하여 ‘ㅋ, ㅌ, ㅍ’으로 축약되어 나타났다. 즉 ‘술ㅎ’이 ‘고기’와 결합한 말이 만들어질 때 ‘ㅎ’이 ‘ㄱ’과 결합하여 축약되었으므로 ‘살코기’와 같은 어형이 생성된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 단일어의 ‘ㅎ’ 종성은 대체로 소멸하였으나 ‘살코기’ 외에도 ㉡ 복합어 속에서 ‘ㅎ’이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더 있다.

3. 위 ‘대화’와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5세기 국어에서 ‘뽕’의 어두에 있는 ‘ㅂ’은 실제로 발음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군.
- ② 15세기 어두 자음군 중 맨 앞의 ‘ㅂ’은 단일어에서 훗날 탈락하였군.
- ③ 15세기 국어의 ‘ㅎ’ 종성 체언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겠군.
- ④ 현대 국어에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이 오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군.
- ⑤ 현대 국어의 ‘살코기’에서 ‘ㅋ’은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이 단어에 남아 있는 것이군.

4. ㉠,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 a. 휩쓸다 : ‘휘-’와 ‘쓸다’가 결합한 말인데, ‘쓸다’는 옛말 ‘쁠다’에서 온 말이다.
- b. 햅쌀 : ‘햐-’와 ‘쌀’이 결합한 말인데, ‘쌀’은 옛말 ‘밭’에서 온 말이다.
- c. 수평 : ‘수-’와 ‘평’이 결합한 말인데, ‘수’는 옛말에서 ‘ㅎ’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 d. 안팎 : ‘안’과 ‘밖’이 결합한 말인데, ‘안’은 옛말에서 ‘ㅎ’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 e. 들뜨다 : ‘들다’와 ‘뜨다’가 결합한 말인데, ‘뜨다’는 옛말 ‘쁘다’에서 온 말이다.

	㉠	㉡
①	a, b	c
②	a, e	c
③	a, b	d
④	b, e	d
⑤	a, b, e	c, d

[12번 보충자료]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형)

5.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집일[짐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달만[당만]'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뜻하다[뜨타다]'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말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 ① '흙하고[흐카고]'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군.
- ② '저녁연기[저녕년기]'는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늘었군.
- ③ '부엌문[부영문]'과 '뽕는[봉는]'은 교체가 한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군.
- ④ '없지[언찌]'와 '물고[물꼬]'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한 개 줄었군.
- ⑤ '넙네[넹네]'와 '밝는[방는]'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두 개 줄었군.

[13번 보충자료]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형)

6. 다음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 지금까지 형태소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특성에 대해 공부했지요? 그럼,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말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다.
- 그의 말은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 나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놓아주었다.

학 생 : 밑줄 친 말들은 모두 (가)

- ①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 ②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 ③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고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군요.
- ④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 ⑤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15번 보충자료]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7.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 ㉡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 ㉢ 피곤해하던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잔다.
- ㉣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값이 비싸다.

- ① ㉠과 ㉡은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과 ㉣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고, ㉡은 서술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④ ㉠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⑤ ㉢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15번 보충자료] 2018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8.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내가 빌린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다.
- ㉡ 우리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극장에 도착했다.
- ㉢ 피아노를 잘 치는 영수는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
- ㉣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음이 드러났다.

- ① ㉠, ㉢에는 모두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 ㉡에는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의 안긴문장에는 부사어가 없지만, ㉢의 안긴문장에는 부사어가 있다.
- ④ ㉡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⑤ ㉢, ㉣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15번 보충자료] 2018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9.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그는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았다.
- ㉡ 바다가 눈이 부시게 파랗다.
- ㉢ 동주는 반짝이는 별을 응시했다.

- ① ㉠의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도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군.
- ② ㉡의 '바다가'와 '눈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 ③ ㉢의 '별을'은 안긴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안은문장의 목적어이군.
- ④ ㉠의 '좋은'과 ㉢의 '반짝이는'은 안긴문장의 서술어이군.
- ⑤ ㉡의 '눈이 부시게'와 ㉢의 '반짝이는'은 수식의 기능을 하는군.

[15번 보충자료]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10. <보기 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문 장

- 아침에 하는 ㉠ 달리기는 건강에 매우 좋다.
- 나는 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더 빨리 ㉡ 달리기 시작했다.

설 명

㉠과 ㉡은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르다. ㉠은 '달리-'에 접미사가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은 '달리-'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며 서술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보기 2>—

- 그는 멋지게 ㉢ 웃음으로써 답변을 회피했다.
- 그 가수는 현란한 ㉣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 오늘따라 학생들의 ㉤ 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 자기 소개서에 “만화를 잘 ㉥ 그림.”이라고 썼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해설>

문항 번호	정답	①	②	③	④	⑤	좋은 문제
1번	⑤	9%	12%	3%	8%	68%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에 의하면, (가)는 음절의 중성에서 일어나는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 (나)는 음절의 중성에서 일어나는 탈락(자음군 단순화)이다.

⑤ ‘음교[음꼬]’는 ‘음-’에서 겹받침 ‘ㅁ’의 ‘ㄹ’이 탈락하여 ‘ㅍ’이 되고, ‘ㅍ’이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없으므로 ‘ㅂ’으로 교체된 후, 뒤에 오는 ‘ㄱ’이 ‘ㄱ’으로 교체되어 [음꼬]가 된다. 그러므로 ‘음교[음꼬]’에는 (가)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 (나)의 ‘자음군 단순화’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꽃힌[꼬친]’은 ‘꽃-’의 ‘ㅈ’이 뒤에 오는 ‘-힌’의 ‘ㅎ’을 만나 ‘ㅈ’으로 축약되어 [꼬친]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꽃힌[꼬친]’에는 (가)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없다.

② ‘뿔이[뿔씨]’는 ‘뿔-’에서 겹받침 ‘ㄹ’의 ‘ㄹ’이 ‘ㅈ’으로 교체되면서 연음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뿔이[뿔씨]’에는 (나)의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없다.

③ ‘비웃[비웁]’은 ‘웃-’의 ‘ㅌ’이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없으므로 ‘ㄷ’으로 교체되어 [비웁]이 된다. 그러므로 ‘비웃[비웁]’에는 (나)의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없고, (가)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④ ‘얹교[안교]’는 ‘얹-’의 ‘ㅎ’이 뒤에 오는 ‘-교’의 ‘ㄱ’을 만나 ‘ㄱ’으로 축약되어 [안교]가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얹교[안교]’에는 (가)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 (나)의 ‘자음군 단순화’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없다.

(덧붙임)

이 문항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평가원이 답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문항은 표준 발음법을 전제로 국어의 음운 변동 중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의 신청의 주된 내용은 오답지 ①의 ‘꽃힌[꼬친]’을 ‘꽃힌 → 꼰힌(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 꼬친(축약) → 꼬친(구개음화, 교체)’과 같은 음운 변동을 거쳐 발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오답지 ①의 ‘꽃힌[꼬친]’에도 <보기>의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첫째, ‘낮 한때[나탄때]’, ‘낮하고[나타고]’처럼 ‘꽃힌’의 중성 ‘ㅈ’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교체된 후, 후행하는 ‘ㅎ’과 축약되어 ‘ㅌ’이 된다는 것, 둘째, ‘꽃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나온 ‘꼰힌’에서 축약을 거친 ‘꼬틴’에 구개음화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행 문법 교과서와 표준 발음법은 물론 학술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현행 문법 교과서에서 ‘꽃히다, 잇히다’ 등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예로 설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면, 현행 문법 교과서들은 ‘꽃히다’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갯히다[저치다]’를 ‘ㅈ’과 ‘ㅎ’이 합쳐져 ‘ㅈ’으로 축약되는 사례로 설명하거나,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ㅊ, ㅌ’이 되는 ‘거센소리되기’를 ‘축약’의 대표적인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발음법 제12항은 ‘ㅈ’과

‘ㅎ’이 ‘ㅈ’으로 ‘축약’이 되는 예로 ‘꽃히다[꼬치다]’, ‘잇히다[안치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꽃힌[꼬친]’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발음된 것이 아니라 ‘ㅈ’과 ‘ㅎ’이 축약되어 발음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낮 한때[나탄때]’, ‘낮하고[나타고]’에서와 같이 ‘ㅈ’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은 후 후행하는 ‘ㅎ’과 축약되어 ‘ㅌ’이 되는 것을 근거로, ‘꽃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꽃힌 → 꼰힌’과 같이 된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학술적 관점에서 볼 때, ‘낮 한때’의 ‘낮’과 ‘한때’는 자립적 성격을 지닌 것이며, ‘낮하고’의 ‘하고’는 비록 조사로 처리되기는 하지만 본래 동사 ‘하다’의 활용형 ‘하고’에서 온 것으로서 앞에 오는 체언과 분리되는 성격을 지닌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의존 형태소의 결합으로 된 ‘꽃- + -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낮 한때[나탄때]’와 ‘낮하고[나타고]’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고 해서 ‘꽃힌[꼬친]’에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꽃-’의 ‘ㅈ’이 후행하는 ‘ㅎ’과 만날 때, 중성 ‘ㄷ’으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후행하는 ‘ㅎ’과 바로 ‘축약’되어 ‘ㅌ’으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꽃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꼰힌’으로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볼 때, ‘꽃힌’에서는 축약형 ‘ㅌ’이 나올 수 없으므로 ‘꼬틴 → 꼬친’과 같은 과정을 상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답지 ①은 적절하지 않고 정답지 ⑤만이 적절하므로 이 문항의 정답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평가원이 위와 같이 답변한 것에 대하여, 2018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던 문과 학생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선생님, <로마자 표기법> 원문을 수록한 인강 교재들을 살펴보니, ‘맞히다[마치다]’가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로 나와 있던데, 이거 <표준 발음법>이랑 <로마자 표기법>이 충돌하는 것 아닌가요?

우선 <표준 발음법 제12항> 원문의 일부를 제시한다.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ㄱ, ㄷ)’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농교(노교) 종틴(조 : 틴) 쌍지(쌍지) 많교(만 : 교)
 얹틴(안틴) 달지(달지)

[붙임 1] 받침 ‘ㄱ(ㄱ), ㄷ, ㅂ(ㅂ), ㅈ(ㅈ)’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각하(가카) 먹히다(머키다) 밝히다(발키다)
 만형(마형) 줍히다(조피다) 넓히다(널피다)
 꽃히다(꼬치다) 얹히다(안치다)

그리고 이 학생이 보여줬던 <로마자 표기법> 원문의 일부를 제시한다.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맞히다[마치다] machida

위의 <로마자 표기법>이 2017학년도 수능 날짜인 2016년 11월 17일(목)에도 적용되고 있었다면, 위 1번 문항은 출처 오류이다. <로마자 표기법>에서 '맞히다[마치다]'를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라고 제시했다면 '맞히다 → 만히다(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 마티다(축약) → 마치다(구개음화, 교체)'와 같은 음운 변동을 거쳐 발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 제12항>과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다.

선생님도 위 학생의 질문을 듣고 나서, 상당히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선생님이 갖고 있던 <로마자 표기법> 원문 표일에도 '맞히다[마치다]'가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8년에 '오르비'에도 이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다시 한번 올렸었다. 하지만 한 선생님께서 <로마자 표기법>이 2014년에 개정되어 '맞히다[마치다]'가 '굳히다[구치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댓글로 지적해주셨다. 즉, '맞히다[마치다]'를 구개음화의 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로마자 표기법>에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은 아래와 같다.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굳히다[구치다] guchida

'맞히다[마치다]'를 구개음화의 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2014년부터 <로마자 표기법>에 반영했다면, <표준 발음법 제12항>과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결국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음운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경제성의 원리'이다. 즉, 어떤 단어가 발음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꽃힌이 [꼬친]'으로 발음되는 것에 대하여, "1) 바로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2)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일어나고 거센소리되기(축약)이 일어난 후 구개음화(교체)가 일어난다." 중 1)번의 설명이 훨씬 간단하다. 그러므로 '꽃힌[꼬친]'은 '꽃-'의 'ㄷ'이 뒤에 오는 '-힌'의 'ㅎ'을 만나 'ㄷ'으로 축약되어 [꼬친]이 되는 거센소리되기 바로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인 견해이다.

어찌됐든 이 문항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 '꽃힌[꼬친]'의 예보다는 다른 예로 출제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 지금까지 제시한 덧붙임 내용은 참고 정도로만 확인하고, 깊이 있게 파고들지는 않아도 될 듯하다.

문항 번호	정답	①	②	③	④	⑤	좋은 문제
2번	①	89%	2%	6%	1%	2%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 1>에 의하면, 'ㅎ' 중성 체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뒤따를 때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는다. '짜히(짱+이)'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ㅎ' 중성 체언인 '나라'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울'이 올 경우 '나라울'과 같이 이어 적을 것이다. ㉠에는 ①, ②, ③의 '나라울'이 들어가야 한다.

<보기 1>에 의하면, 'ㅎ' 중성 체언 뒤에 관형격 조사 'ㅅ'이 뒤따를 때 'ㅎ'은 나타나지 않는다. '뺏(짱+ㅅ)'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ㅎ' 중성 체언인 '깊' 뒤에 관형격 조사 'ㅅ'이 올 경우 'ㅎ'이 나타나지 않고 '깊'과 같이 적을 것이다. ㉡에는 ①, ⑤의 '깊'이 들어가야 한다.

<보기 1>에 의하면, 'ㅎ' 중성 체언 뒤에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뒤따를 때 'ㅎ'은 뒤따르는 'ㄱ, ㄷ'과 어울려 'ㅋ, ㅌ'으로 나타난다. '짜토(짱+도)'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ㅎ' 중성 체언인 '얇' 뒤에 'ㄱ'으로 시작

하는 조사 'ㄱ'이 올 경우 'ㅎ'이 'ㄱ'과 어울려 'ㅋ'으로 나타나 '안콰'와 같이 적을 것이다. ㉢에는 ①, ③, ⑤의 '안콰'가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문항 번호	정답	①	②	③	④	⑤	좋은 문제
3번	③	5%	4%	88%	2%	1%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자료]의 2문단 여섯째 줄~일곱째 줄에 의하면, 15세기 국어의 'ㅎ' 중성 체언 '슬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슬히'와 같이 연음되어 나타났다. 'ㅎ'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ㅎ' 중성 체언이 단독형으로 쓰일 때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료]의 1문단 둘째 줄~셋째 줄에 의하면, 어두 자유군 중, 맨 앞의 'ㅂ'은 당시에 실제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15세기 국어에서 'ㅂ'의 어두에 있는 'ㅂ'은 실제로 발음이 되었을 것이다.

② [자료]의 1문단 넷째 줄~다섯째 줄에 의하면, 어두 자유군 중 맨 앞의 'ㅂ'은 훗날 탈락하였으나, 과거에 만들어진 복합어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④ [자료]의 1문단 첫째 줄~둘째 줄에 의하면, 현대 국어와 달리 15세기 국어에서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유, 즉 어두 자유군이 올 수 있었다. 현대 국어에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유가 오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⑤ [자료]의 2문단 열한째 줄~열둘째 줄에 의하면, '살코기'는 15세기의 'ㅎ' 중성 체언 '슬ㅎ'에서 'ㅎ'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이다.

문항 번호	정답	①	②	③	④	⑤	좋은 문제
4번	③	5%	3%	84%	2%	6%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복합어 속에서 'ㅂ'이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이고, ㉡은 복합어 속에서 'ㅎ'이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이다.

a를 보면 현대 국어의 '휘+쓸다 → 휘쓸다'에서 'ㅂ'이 생겨나며, '쓸다'의 옛말이 '쁠다'라고 나와 있다. 15세기에서 '휘+쁠다 → 휘쁠다'가 만들어진 후 나중에 '쁠'의 어두에 있는 'ㅂ'이 앞 형태소 '휘-'의 받침 자리로 가서 붙어 '휘쓸다'와 같은 형태가 생성된 것이다. 이는 ㉠의 사례에 해당한다.

b를 보면 현대 국어의 '해+쌀 → 햅쌀'에서 'ㅂ'이 생겨나며, '쌀'의 옛말이 '쁠'이라고 나와 있다. 15세기에서 '해+쁠 → 햅쁠'이 만들어진 후 나중에 '쁠'의 어두에 있는 'ㅂ'이 앞 형태소 '해-'의 받침 자리로 가서 붙어 '햅쌀'과 같은 형태가 생성된 것이다. 이는 ㉡의 사례에 해당한다.

c를 보면 현대 국어의 '수평'은 '수'와 '평'이 결합한 말인데, '수'는 옛말에서 'ㅎ'을 중성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나와 있다. [자료]의 2문단에서는 15세기 국어의 'ㅎ' 중성 체언이 단독형으로 쓰일 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 뒤에 'ㄱ, ㄷ, ㅂ'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즉, 'ㅎ' 중성 체언 뒤에 '평'과 같이 'ㄱ'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현대 국어의 '수평'에서 'ㅎ'이 남아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d를 보면 현대 국어의 '안콰'는 '안'과 '콰'가 결합한 말인데, '안'은 옛말에서 'ㅎ'을 중성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나와 있다. [자료]의 2문단에 의하면 15세기 국어의 'ㅎ' 중성 체언 뒤에 'ㄱ, ㄷ, ㅂ'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에는 'ㅋ, ㅌ, ㅍ'으로 축약되어 나타났다. 즉, '안ㅎ+콰 → 안콰'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것이 현대 국어에서 '안콰' 그대로 이어져 왔으므로, 이는 ㉣의 사례에 해당한다.

e를 보면 현대 국어의 ‘들뜨다’는 ‘들다’와 ‘뜨다’가 결합한 말인데, ‘뜨다’의 옛말이 ‘뜨다’라고 나와 있다. 그래서 15세기에서는 ‘들+뜨다→들뜨다’가 만들어졌을 것이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뜨-’의 어두에 있는 ‘ㅂ’이 탈락되어 ‘들뜨다’로 나타난다. 이는 ㉠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문항 번호	정답	①	②	③	④	⑤	좋은 문제
5번	①	63%	5%	18%	11%	3%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훽하고[호카고]’는 ‘훽’의 접받침 ‘ㄹ’에서 ‘ㄹ’이 탈락하여 [훽하고]가 되고 뒤에 오는 ‘하고’의 ‘ㅎ’과 합쳐져 [호카고]가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그래서 ‘훽하고’가 [호카고]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저녁연기[저녕년기]’는 받침이 있는 말인 ‘저녁’ 뒤에 ‘이/야/여/요/유’로 시작되는 말인 ‘연기’가 결합하면서 ‘ㄹ’이 첨가되어 [저녕년기]가 된 후, 첨가된 비음 ‘ㄹ’로 인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저녕년기]가 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저녁연기’는 [저녕년기]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③ ‘부엌문[부엌문]’은 ‘부엌’의 ‘ㄱ’이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없으므로 ‘ㄱ’으로 교체되어 [부엌문]이 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후, 뒤에 오는 비음 ‘ㅁ’으로 인해 ‘ㅇ’으로 한번 더 교체되어 [부엌문]이 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부는[부는]’은 ‘부’의 ‘ㄱ’이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없으므로 ‘ㄱ’으로 교체되어 [부는]이 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후, 뒤에 오는 비음 ‘ㄴ’으로 인해 ‘ㅇ’으로 한번 더 교체되어 [부는]이 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부엌문’과 ‘부는’은 각각 [부엌문]과 [부는]으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엷지[언찌]’를 보면 ‘엷-’의 접받침 ‘ㄷ’에서 ‘ㄷ’이 탈락하였음을 알 수 있고, ‘-지’의 예사소리 ‘ㄷ’이 된소리 ‘ㅌ’으로 교체되어 [언찌]가 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뭍고[물꼬]’를 보면 ‘뭍-’의 접받침 ‘ㄹ’에서 ‘ㄱ’이 탈락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고’의 예사소리 ‘ㄱ’이 된소리 ‘ㄱ’으로 교체되어 [물꼬]가 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엷지’와 ‘뭍고’는 각각 [언찌]와 [물꼬]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교체 및 탈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한 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넙네[넙네]’는 ‘넙-’에서 접받침 ‘ㄹ’의 ‘ㄹ’이 탈락하여 [넙네]가 된 후, 뒤에 오는 비음 ‘ㄴ’이 유음 ‘ㄹ’로 교체되어 [넙네]가 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밝는[방는]’은 ‘밝-’의 접받침 ‘ㄹ’에서 ‘ㄹ’이 탈락하여 [방는]이 된 후, 뒤에 오는 비음 ‘ㄴ’으로 인해 ‘ㅇ’으로 한번 더 교체되어 [방는]이 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넙네’와 ‘밝는’은 각각 [넙네]와 [물꼬]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한 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덧붙임)
‘뭍고→[물꼬]’의 음운 변동 순서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아래와 같이 설명하는 것은 틀렸다고 할 수 있다.

뭍고
→ ① [물고](접받침 ‘ㄹ’에서 ‘ㄱ’이 탈락하여 ‘ㄹ’만 남음)
→ ② [물꼬](-고의 예사소리 ‘ㄱ’이 된소리 ‘ㄱ’으로 교체됨)

위의 설명이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용언 어간의 ‘ㄱ’이 뒤에 오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교체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다’가 [알따]로 발음되지 않고 [알다]로 발음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된다. 그러므로 ‘뭍고→[물꼬]’의 음운 변동 순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아래와 같다.

뭍고
→ ① [물꼬](-리의 ‘ㄱ’이 뒤의 예사소리 ‘ㄱ’을 된소리 ‘ㄱ’으로 교체 시킴)
→ ② [물꼬](-리의 ‘ㄱ’이 뒤의 예사소리 ‘ㄱ’을 된소리 ‘ㄱ’으로 교체 시키고 나서 탈락함)

위의 내용대로 하면, ‘-고’의 예사소리 ‘ㄱ’이 접받침 ‘ㄹ’의 ‘ㄱ’으로 인해 된소리 ‘ㄱ’으로 교체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학계에서도 위와 같이 설명한다. 하지만 현행 <독서와 문법> 6종 교과서에서는 위와 같은 단어의 음운 변동 순서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해설에서 본 것처럼,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된소리되기(교체)가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

문항 번호	정답	①	②	③	④	⑤	좋은 문제
6번	③	9%	3%	82%	3%	3%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우선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다.’에서, ‘은’과 ‘는’은 조사이다. 그리고 ‘그의 말은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에서, ‘듣-’과 ‘들-’은 모두 용언의 어간이다. 다음으로 ‘나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놓아주었다.’에서 ‘-았-’과 ‘-었-’은 모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이 여섯 개의 형태소가 어떤 형태소에 속하는지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은	는	듣-	들-	-았-	-었-
의존	의존	의존	의존	의존	의존
형식	형식	실질	실질	형식	형식
조사	조사	어간	어간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③ 우선 위 여섯 개의 형태소는 모두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 그리고 ‘은/는’은 앞 체언에 받침이 있으면 ‘은’이 결합하고, 앞 체언에 받침이 없으면 ‘는’이 결합한다. ‘듣-/들-’은 용언 ‘들다’의 어간 ‘듣-’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어간 ‘듣-’의 형태가 유지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라’가 결합하면 어간 받침 ‘ㄷ’이 ‘ㄹ’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 ‘들-’이 된다. ‘-았-/었-’은 어간의 마지막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았-’이 결합하고, 음성 모음이면 ‘-었-’이 결합한다. 즉, ‘은/는’, ‘듣-/들-’, ‘-았-/었-’은 각각 앞 체언의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 뒤에 결합하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는지 모음으로 시작하는지, 어간의 마지막 모음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 등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것은 위 여섯 개의 형태소 중, 조사 ‘은’과 ‘는’으로 두 개이다.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것은 위 여섯 개 형태소의 공통점이다.
②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것은 위 여섯 개의 형태소 중, 조사 ‘은’과 ‘는’으로 두 개이다.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조사 ‘은’과 ‘는’ 그리고 선어말 어미 ‘-았-’, ‘-었-’으로 네 개이다.

2019-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법 복습자료 **설사항**

- ④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것은 위 여섯 개 형태소의 공통점이다.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조사 '은'과 '는' 그리고 선어말 어미 '-았-', '-었-'으로 네 개이다.
- ⑤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조사 '은'과 '는' 그리고 선어말 어미 '-았-', '-었-'으로 네 개다.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것은 위 여섯 개 형태소의 공통점이다.

문항 번호	정답	①	②	③	④	⑤	좋은 문제
7번	②	15%	27%	8%	43%	7%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라는 명사절이 안겨 있다.
 - 여기서 명사절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 그 명사절 속에 '따뜻한'이라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봄이 따뜻하다'이므로, 관형절로 안기면서 주어 '봄이'가 생략되었다.
- ②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 '내가 만난'이라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내가 친구를 만나다'이므로, 관형절로 안기면서 목적어 '친구'가 생략되었다.
 - '마음이(주어)+정말(부사어)+착하다(서술어)'라는 서술절이 안겨 있다.
- ③ 피곤해하던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잔다.
- '피곤해하던'이라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동생이 피곤해하였다'이므로, 관형절로 안기면서 주어 '동생이'가 생략되었다.
 - '엄마가 모르게'라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 ④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값이 비싸다.
- '그가 시장에서 산'이라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그가 시장에서 배추를 샀다'이므로, 관형절로 안기면서 목적어 '배추'가 생략되었다.
 - '값이(주어)+비싸다(서술어)'라는 서술절이 안겨 있다.

②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란 서술절을 말하는 것으로, ㉠과 ㉡에는 서술절이 존재하지만, ㉢과 ㉣에는 서술절이 존재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란 관형절을 말하는 것으로, ㉠과 ㉡에는 모두 관형절이 존재한다.
- ③ ㉠은 명사절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에 부사어 '빨리'가 있고, ㉡은 서술절 '마음이 정말 착하다'에 부사어 '정말'이 있다.
- ④ ㉢, ㉣에는 주어 생략된 관형절이 존재하고, ㉤, ㉥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존재한다.
- ⑤ ㉤의 안긴문장 '엄마도 모르게'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이며, ㉥의 안긴문장 '그가 시장에서 산'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관형절이다.

문항 번호	정답	①	②	③	④	⑤	좋은 문제
8번	①	26%	10%	15%	18%	21%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내가 빌린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다.
- '내가 빌린'이라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내가 자전거를 빌리다'이므로, 관형절로 안기면서 목적어 '자전거'가 생략되었다.
- ㉡ 우리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극장에 도착했다.
- '공연이 시작되기'라는 명사절이 안겨 있다.
 - 여기서 명사절 '공연이 시작되기'는 뒤에 오는 체언 '전'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어로 쓰였다. '전'은 뒤에 조사 '에'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품사가 체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 피아노를 잘 치는 영수는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
- '피아노를 잘 치는'이라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영수가 피아노를 잘 치다'이므로, 관형절로 안기면서 주어 '영수'가 생략되었다.
 - '손가락이(주어)+누구보다(부사어)+길다(서술어)'라는 서술절이 안겨 있다.
- ㉣ 피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숙였음이 드러났다.
- '피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숙였음'이라는 명사절이 안겨 있다.
 - 여기서 명사절 '피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숙였음'은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 명사절 안에 '마을에 사는'이라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마을에 산다'이므로, 관형절로 안기면서 주어 '사람들이'가 생략되었다.

①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란 서술절을 말하는 것으로, ㉡에는 서술절이 존재하지만, ㉢, ㉣, ㉤에는 서술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의 서술어는 '내 친구의 것이다.'로 이는 '내 친구의(관형어)+것이다(서술어)'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주어+서술어'의 형태를 갖춰야 하는 '절'이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란 관형절을 말하는 것으로, ㉠과 ㉡에는 모두 관형절이 존재한다.
- ③ ㉢은 명사절 '공연이 시작되기'에 부사어가 없지만, ㉣은 관형절 '피아노를 잘 치는'에 부사어 '잘'이 있다.
- ④ ㉣의 안긴문장 '공연이 시작되기'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며, ㉤의 안긴문장 '피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숙였음'은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주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다.
- ⑤ ㉢, ㉣에는 모두 주어 생략된 관형절이 존재한다.

문항 번호	정답	①	②	③	④	⑤	좋은 문제
9번	③	3%	3%	74%	18%	2%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그는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았다.
- '좋은'이라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기회가 좋다'이므로, 관형절로 안기면서 주어 '기회가'가 생략되었다.
- ㉢ 바다가 눈이 푸시게 파랗다.
- '눈이 푸시게'라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 ㉣ 동주는 반짝이는 별을 응시했다.
- '반짝이는'이라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별이 반짝이다'이므로, 관형절로 안기면서 주어 '별이'가 생략되었다.

③ ㉔의 '별을'은 안긴문장 '반짝이는'의 주어이고, 안은문장 '동주는 응시했다.'의 목적어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의 '삼았다'는 주어 '그는' 이외에도 목적어 '위기를', 부사어 '기회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 ② ㉔의 '바다가'는 안은문장 '바다가 파랗다'에서 서술어 '파랗다'의 주어이고, '눈이'는 안긴문장 '눈이 부시게'에서 서술어 '부시게'의 주어이다.
- ④ ㉔의 '좋은'은 그 자체가 안긴문장으로, 안긴문장에서 서술어이며 주어 '기회가'가 생략되었다. ㉔의 '반짝이는'도 그 자체가 안긴문장으로, 안긴문장에서 서술어이며 주어 '별이'가 생략되었다.
- ⑤ ㉔의 '눈이 부시게'는 부사절로 안긴문장으로, 서술어 '파랗다'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㉔의 '반짝이는'은 관형절로 안긴문장으로, 체언 '별'을 수식하고 있다.

문항 번호	정답	①	②	③	④	⑤	좋은 문제
10번	③	7%	7%	76%	4%	6%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에 의하면 ㉔의 '달리기'는 어간이자 어근인 '달리-'에 접미사가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㉔의 '달리기'는 어간 '달리-'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고 나와 있다.

'그는 멋쩍게 ㉔ 웃음으로써 답변을 회피했다.'에서 ㉔는 부사어 '멋쩍게'의 수식을 받으므로, ㉔의 '웃음'은 동사이다.

'그 가수는 현란한 ㉔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에서 ㉔는 관형어 '현란한'의 수식을 받으므로, ㉔의 '춤'은 명사이다.

'오늘따라 학생들의 ㉔ 걸음이 가벼워 보였다.'에서 ㉔는 관형어 '학생들의'의 수식을 받으므로, ㉔의 '걸음'은 명사이다.

'자기 소개서에 "만화를 잘 ㉔ 그림."이라고 썼다.'에서 ㉔는 부사어 '잘'의 수식을 받으므로, ㉔의 '그림'은 동사이다.

그러므로 ㉔과 품사가 같은 것은 ㉔, ㉔이다.